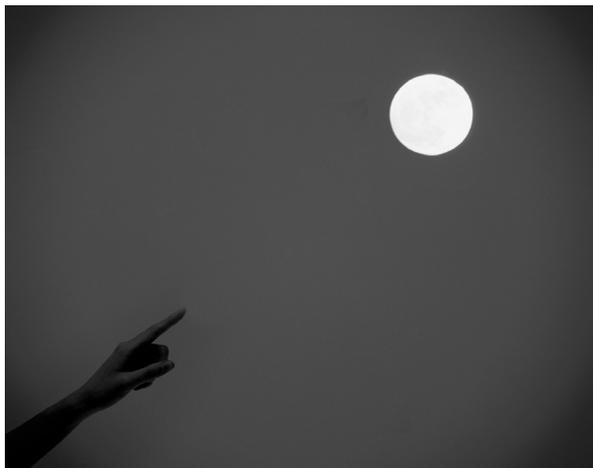


다른 말로 하자면(1부)

| 존 트로이 | 김기형 옮김 |

단절되고 모든 것을 나누어 보는 '우둔한 의식'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단절 없는 자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이야기꾼

마음속에 나타나 우리 삶의 줄거리를 풀어내는 이야기꾼인 ‘생각으로서의 나I-thought’는, 일시적인 믿음이다. 이 ‘나’는 자신의 이분법적인 도구로는 결코 자신의 근원인 미지를 알 수 없다. 우둔한 의식 Insentience은 자각Sentience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각은 우둔한 의식을 일깨워준다.

이 우둔한 ‘생각으로서의 나’는 개별 인격으로서, 상상해낸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그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추구자이다. 이 ‘나’는 악마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도 아니다. 때때로 이 악동은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결코 삶의 무대를 다 차지할 수는 없다. 아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 거대한 신비는 ‘생각으로서의 나’라는 화자를 적절한 관점으로 되돌려놓는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서의 나’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 ‘나’는 자신이 본질적인 존재가 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둔한 악동에 불과하다. 우리의 본성인 양 행세하는.



진리란 생각이 아니다

진리란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이 자각하는 존재^{sentient existence}는 완전무결하고 단절되지 않는다. 단절 없는 자각은 우둔한 마음으로 파악되거나 알거나 대상화할 수 없다. 이 자각하는 존재는 기억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고요하고 완전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지극히 근본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유일무이한 ‘참나^{the Self}’라고 말한다.

‘진리^{Truth}’라는 말은 지식과 개별화된 형상이 생겨나기 이전의,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을 의미한다. 이때의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의 진리와는 다르다.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 사용된 ‘진리^{Truth}’는 대문자로 표시했다. ‘참나^{Self}’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문제 없음

자각sentience이란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가 아니다. 단절 없는 자각은 모든 의식상태와 생각과 외면적인 결정의 토대가 되는, 고요한 기반이다.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미스터리이며, 과학자와 과학만능주의가 존재의 '풀기 힘든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질적인 자각, 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파헤치기에 적절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가시는 인간이라는 표면적이고 유한한 관념의 속성이다. 그 유한성의 베일이 벗겨지면, 죽음이라는 가시는 뽑혀나가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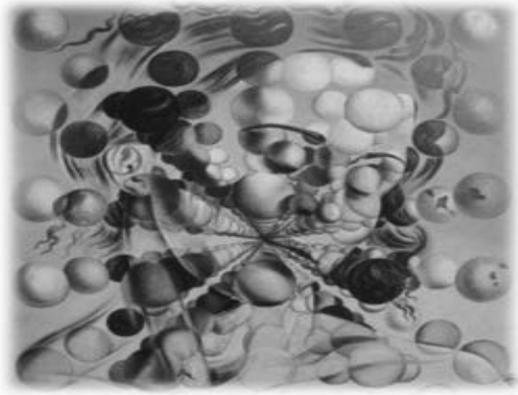


사랑은 행위가 아니다

‘생각으로서의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사랑은 ‘행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사랑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각하는 현재 *sentient presence* 안에 나타난 우둔한 환영이다. 이 ‘참나 *Self*’의 바탕에 타자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생각이나 기억, 의식 상태, 생활양식이 아니다. 사랑은 ‘있음 *IS*’이다. 사랑은 결코 행해지거나 획득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하려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몸을 맡기면 우둔한 의식의 장막이 얇아져 최고의 사랑이 더 이상 어떤 형태로 포장되거나 스스로를 차별화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최고의 존재로서 언제나 현존한다. 사랑할 대상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는 진정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사랑에는 구분이 없다. ‘생각으로서의 나’가 사랑 안에 스러지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지나간 일이 되기 마련이다

그 어떤 깨어남의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에 매달린다는 것은 지나간 것에 주의를 묶어놓는 일이 된다. 그것은 흘러가버릴 기억에 자각을 가두는 것이 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펼쳐지는 형상을 붙잡은 것일 뿐, 늘 존재하는 자각의 본모습이 아니다. 형상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다. 형상, 이름, 생각은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신비하게, 완벽하게 전개되다 사라진다. 모든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터전은 문자 그대로 항상 있는 그대로이며,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스토리는 경험들의 집합체인데, 그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도 결국은 지나간 일이 되고 만다. 행위자라는 짐을 진 채 천변만화하는 신화가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 '생각으로서의 나는 옛 스토리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스토리 흐름을 한데 합치고 공고화한다. 만물은 움직임

이 없는 자각 위에 나타났다가 지나간다.



진주를 취하고 껍질은 버리라

지혜란 평범함, 신비로운 신화적 상상, 미묘한 문화적 차이, 생생한 꿈, 경전, 우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다. 많은 경우 지혜는 특정한 시대와 장소의 종교적 규율이라는 외양을 덮어쓰고 있다.

지혜는 굴 껍질과 유사하다. 겹겹이 쌓여있으며 알갱이들이 뭉쳐있고 진흙 때문에 다소 더러워 보이는데다가 모양도 제각각이다. 어느 껍질이 진주를 품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아주 드물긴 하지만 껍질을 벌렸을 때 아름답고 매끈한 진주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혜의 진주 또한 이와 같다. 다시 말해 지혜의 진주가 보이면 진주를 우리의 직관에 대한 확인으로 보고 껍질은 버리도록 하라.



눈으로 눈을 찾기란 부질없는 짓이다

자각은 내재된 것이고 연속적이다. 자각은 결코 타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나Self이며 만물이 그 의식 안에서 나타난다. 원초적 의식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둘 다의 기반이다. 모든 경험도 여기에 속한다.

이 참나를 마치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듯 찾는다는 것은 눈으로 눈을 찾는 것과 같다. 거울을 들여다보듯 비춰진 대상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나를 본다. 보는 자가 곧 보이는 대상이다.



자각은 고등동물의 부산물이 아니다

단절 없는 자각 위에 떠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현상’이다. ‘생각으로서의 나’ 혹은 이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보거나 자신이 고등동물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취약한 또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이 꿈속에 나온 인물이라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

단절 없는 자각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 경험적 지식, 믿음, 기억 혹은 지성을, 내재하는 무언無言의 직관으로부터 구분해내려면 믿음을 넘어서야 한다. 그 결과 남는 것이 단절 없는 존재이다.

단절 없는 자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형상의 기반인 고요한 참나 속에서 완벽하게 펼쳐지는 의식의 놀이이다. 형상은 원초적 의식의 기반이 아니다. 형상은 구분없는 원초적 의식 속에 나타났다가, 그 일부가 되었다가 다시 사라진다. 원초적 의식은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원초적 의식 안에서 나고 죽는 개체라는 신화이다.



단어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라. 물이라는 단어가 축축한가? 그것으로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가? 그 말이 정말 물인가? 물론 아니다. 물을 가리키는 단어일 뿐 물 자체가 아니다.

이제 '나라는 생각'을 떠올려보자. 그 단어가, 혹은 '나'라는 내적인 가정이 진정 당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라.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며, 침묵 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으로서의 나'를 실시간으로 알아차리는 전지전능한 자각을 가리키는 알파벳 문자에 불과하다. 국소성을 가정하는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토대가 진정한 당신이다.

지혜는 그 어떤 마음의 움직임보다 선행한다. 지혜는 새롭거나 변화하는 의식 상태가 아니다. 존재는 그 어떤 말에도, 주체에도 대상에도

묶여있지 않다. ‘나라는 생각’을 비롯해서 모든 의식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존재가 바로 지혜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In Other Word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존 트로이** John Troy |

역자 | **김기형** | 〈지금여기〉번역위원.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학원(Graduate Center) 철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